





교동도의 해안철책 사이로 보이는 북녘땅

북녘땅을 바라보는 교동도의 해안철책 사이로 보이는 북녘땅. 북녘땅은 푸르스름한 산과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그러나 이 풍경은 철책 너머에 갇혀 있다. 이 풍경은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나 이 풍경은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나 이 풍경은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교동도 망향대. 황해도가 고향인 실향민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교동도 망향대. 황해도가 고향인 실향민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이 망향대는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낸다. 망향대에는 황해도 출신의 실향민들이 모여서 고향의 소식을 나누고, 서로 격려했다. 이 망향대는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낸다. 망향대에는 황해도 출신의 실향민들이 모여서 고향의 소식을 나누고, 서로 격려했다.

교동도 망향대. 황해도가 고향인 실향민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이 망향대는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낸다. 망향대에는 황해도 출신의 실향민들이 모여서 고향의 소식을 나누고, 서로 격려했다. 이 망향대는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낸다. 망향대에는 황해도 출신의 실향민들이 모여서 고향의 소식을 나누고, 서로 격려했다.



신미양요 당시 미군에 점령당한 강화도 덕진돈대  
 <1871년 신미양요 사진집>(2014년 강화군 발행)에서 발췌



오늘날 덕진돈대의 모습

2018년 4월 27일, 강화도 덕진돈대 일대에 일출하는 해돋이 풍경이 아름답다. 해가 뜨면 푸른 바닷물이 반짝인다. 하늘은 맑고, 바람이 시원하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특히, 여름이면 더욱 붐빈다. 해돋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강화도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다. 덕진돈대는 그중 하나이다. 1871년 신미양요 당시 미군에 점령당한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관광지로 변모했다. 해돋이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다. 특히, 아침 일찍 오면 더욱 좋다. 해가 뜨기 전의 풍경이 아름답다. 강화도 여행을 계획한다면, 덕진돈대를 꼭 방문해보길 바란다.

강화도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이다. 덕진돈대는 그중에서도 특별한 곳이다. 해돋이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다. 특히, 아침 일찍 오면 더욱 좋다. 해가 뜨기 전의 풍경이 아름답다. 강화도 여행을 계획한다면, 덕진돈대를 꼭 방문해보길 바란다.

0/00 000(000000000 000)